

KOBA 2022 에서 카메라의 미래를 보자!

글·사진. 나종광 OBS 경인TV 촬영감독



올해 KOBA 쇼는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전시회라서 반가움이 앞섰다. 하지만 필자도 이 원고의 의뢰를 받기 전까지 언제 전시회를 하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였고 심지어 어떤 장비들이 전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아마도 이런 경우도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의 KOBA 쇼도 오랜만이어서 첫날에 취재하면서도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소니코리아의 KOBA 전시회 불참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소니코리아의 불참이었는데,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전시회를 하지 않으면서 마케팅 방식의 변화가 분명 필요했을 것이고, 전시회를 하지 않고도 별다른 매출의 변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니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인 VENICE 2를 ‘2021 넥스트 방송영상제작 세미나&전시회’에서 잠깐 보고 실제로는 많이 보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KOBA 2022에서 보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소니는 올해 사진 관련 전시회인 ‘P&I 2022’에도 참가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KOBA 쇼에도 나오지 않은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물론 우측의 사진도 삼양옵틱스의 XEEN 렌즈 부스에 아나몰픽 렌즈와 같이 전시된 베니스 카메라인데, 아마도 다른 부스에도 소니 카메라들이 전시가 되어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소니의 시네라인 카메라인 FX3는 FX6와 함께 프로페셔널 라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 라인이라서 KOBA 쇼와는 연관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현재 방송용 B캠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메인 카메라로도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이다.

특히 인터넷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로써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카메라인데, 문제는 국내에서 제값 주고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반도체 부족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카메라나 렌즈를 구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고, 엔화가 떨어진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직구하는 것이 조금 싸기도 하고, 빠르게 카메라를 입수할 생각으로 급하게 카메라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직구를 선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카메라를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 한정 수량만 한국에 배분되어서 구입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하다 보니 따로 마케팅하지 않아도,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다.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는 8K까지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출시됐지만, 캠코더나 소형 시네마 라인, 방송용 카메라 라인에서는 전혀 8K에 대해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소형 캠코더의 필요성은 분명 누구나 갖고 있지만 대형 센서로 촬영된 얇은 심도의 영상에 눈높이가 올라간 시청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로잡을지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8K와 4K 120fps 촬영이 가능한 작은 캠코더가 빨리 나와주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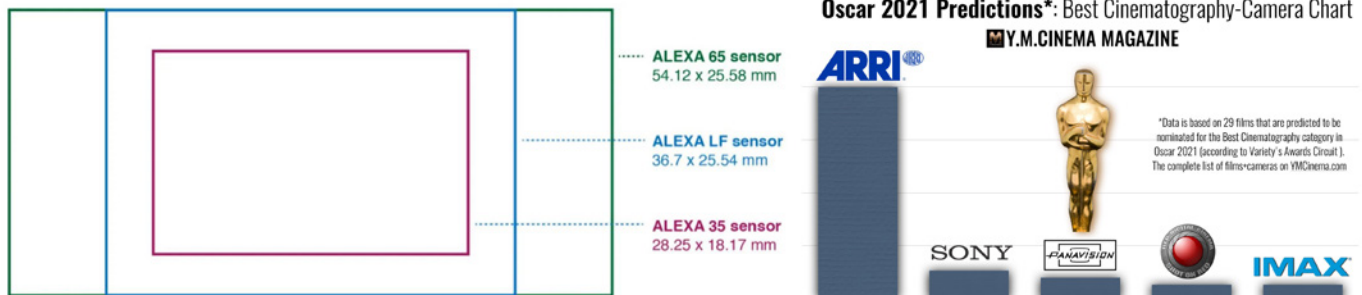
ARRI는 슈퍼35로



ARRI는 4K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던 회사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센서에 4K를 담아서 ALEXA 65를 출시하고, 그 후에 ALEXA LF를, ALEXA Mini LF, 그리고 이번에 ALEXA Mini보다 조금 더 큰 ALEXA 35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ALEXA 35의 센서는 4608×3164, 27.99×19.22mm로 해상도는 올라가고 센서 크기는 가로 넓이가 작아졌지만 세로는 조금 커진 상태이다.

2021년 당시 아카데미 후보작에 오를 예정이었던 29개 작품에서 사용된 카메라를 보면 ARRI 카메라로 촬영한 영화의 그래프가 아래의 사진과 같다고 하는데, 그만큼 ARRI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센서를 고집하던 ARRI가 슈퍼35 사이즈의 카메라를 만들어서 ALEXA Mini보다는 조금 큰 카메라를 발표했다는 것은 또 한 번 카메라 시장을 뒤흔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극영화용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던 렌즈들을 활용하고, 부족한 대형 센서용 렌즈 자원들을 올드렌즈들을 사용함으로써 제작비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필름으로 촬영해왔던 촬영감독들에게 익숙한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ARRI의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ARRI는 세기 P&C와 영도B&C에서도 같이 판매를 하는데, KOBAS 쇼에는 고일만 참가를 했다. ZEISS에서 나온 렌즈들을 보려면 세기 P&C가 전시회에 나와줘야 하는데, ALEXA 35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하면서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



사실 카메라 관련 세미나를 전시회장에서 하는 자체도 주위가 분산되고 산만해서 별로 좋지 않고, 조금 떨어진 세미나실에서 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뭔가 촬영감독이나 예비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Canon



캐논은 유일하게 'P&I 2022'와 'KOBIA 2022'에 모두 참석했다. 물론 규모는 조금 줄었고, 새로운 장비가 준비된 것도 아니지만, 충실하게 참가해줘서 웬지 필자도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캐논 캠코더도 작년에 발표된 카메라이지만 XF605는 3가지 농도의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35mm 환산 25.5~382.5mm 광학 15배 줌이 가능한 카메라이며 4K 60p 촬영이 가능하다.

캐논 시네마 카메라 EOS R5 C는 8K 60p RAW로 내부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이다. KOBIA 쇼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을 때 오래

들고 촬영하면 피로감이 오겠지만 밸런스는 잘 맞게 구성되어 전시했다. 이 카메라의 최대 단점인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백업을 위해 외부 녹화까지 하면서, 무선마이크를 장착한 세팅이 나쁘지는 않았다.



맨 우측의 사진처럼 시네마 라인이지만 줌 렌즈를 장착해 방송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 조합은 그 전부터 전시되었던 익숙한 모습이지만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꽤 반가웠다.

Blackmagicdesign

블랙매직디자인 부스는 편집 관련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았다. 블랙매직디자인의 카메라들은 기존의 카메라들의 디자인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처음 카메라를 접하는 유저들에게는 아마도 크게 거부감을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빈치 리졸브와 같은 색보정, 편집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인 만큼 크로마키 작업에도 뛰어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Blackmagic Pocket Cinema Camera 6K 카메라도 전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화면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카메라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필름 텔레시네 장비도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블랙매직디자인의 카메라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12K 촬영이 가능한 Blackmagic URSA Mini Pro 12K 카메라는 언젠가 꼭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카메라이다. 현재보다 좀 더 가볍고 작게만 출시가 된다면 좋겠지만 12K의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카메라가 작다는 것은 꼭 장점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에서 좀 더 익숙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으면 고마울 것 같다.

Panasonic

파나소닉 역시 부스가 조금 축소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갖출 것은 모두 갖춘 상태로 전시회에 참석했다. 비록 이제는 필자가 안면이 있는 파나소닉 관계자들을 만날 수는 없어서 조금은 낯선 부분도 있어서 아쉬웠지만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웠다.



파나소닉의 카메라 이슈로 최근에 루믹스 GH6가 출시되기는 했지만 풀프레임 카메라인 루믹스 S1급의 카메라가 좀 더 가볍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이번 KOBA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다.

루믹스 GH6는 마이크로포서즈 센서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보였는데, Cinema 4K인 4096×2160 60p로 4:2:2 10bit 800Mbps로 무제한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며, 4K 120프레임 10bit 녹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5.7K 30p로 ProRes 422 HQ/ ProRes 422 내부 녹화도 가능하며, 5축 바디 내장 손 떨림 기능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할 때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8K 5760×4320 4:3 아나몰픽 모드로 촬영이 가능해서 센서의 화소를 모두 사용하면 17:9 화면비로 촬영하거나, 2.39:1 화면비로 촬영이 가능하다. 아쉬움 부분은 파나소닉만이 아직 8K 촬영이 가능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니콘의 Z9도 8K 60p 기록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파나소닉만 아직 출시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한때에는 루믹스 GH6가 8K를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풀프레임 카메라 라인에서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마이크로포서즈 카메라로 출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본체 무게만 545g의 박스형 미러리스 카메라인 루믹스 BGH1도 같이 전시가 되었는데, 가볍게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관심이 가는 카메라인 것은 분명한데, 또 이것저것 장비를 장착하다 보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드론이나 짐벌에 올려 사용하기에는 확실하게 매력이 분명해 보인다.



파나소닉의 소형 캠코더 역시 아직은 새로운 부분이 없어 보였는데, 웬지 소니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카메라 외에 다른 부분으로는 역시 유튜브나 IP 기반 전송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Ikegami



이케가미 카메라는 야외용 카메라보다는 스튜디오나 중계용 카메라가 주종목인 회사인데 유일하게 4K 박스 카메라를 출시한 회사이기도 하다. 박스형 카메라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계를 나갔을 때 설치가 조금 더 쉽다는 장점 때문으로 대부분의 스포츠 중계에서는 줌 배율이 높은 박스형 줌 렌즈를 사용하게 된다. EFP 타입의 카메라에 박스형 렌즈를 장착하려면 그에 걸맞은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고, 로케이션의 경우에는 장비를 설치하고 분해하는 작업을 매번 해야 한다. 아무래도 장비의 부속이 많다는 것은 불편하고, 분실의 염려도 생기며, 장·탈착을 반복할수록 생기는 부속의 마모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부피가 나가는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무게를 줄인 박스형 카메라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작은 박스 카메라는 무인카메라로 픽스해서 풀샷으로 사용하거나 좁아서 큰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메라 역시 뷰파인더를 장착하고 무선 장비들도 장착하다 보면 부피가 커지겠지만 그래도 현대 스포츠 중계에서 꼭 필요한 카메라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RED는 올해도 장외에

레드를 국내 수입 판매하고 있는 디브이인사이드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코엑스 근처에 있는 펍을 대여해서 그곳을 찾는 촬영 감독들에게 전시회도 보고 다과도 즐기면서 서로 카메라와 촬영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 주는 제작자나 촬영감독들에 대한 보답이 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없는 여유로운 공간에서 천천히 파티를 즐기는 마음으로 카메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KOBA 쇼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해가고 발전해가는 방송업계나 관계자들의 수준에 맞게 전시회 공간도 좀 더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하게, 또한 카메라나 장비들이 더 돋보이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관람객들이나 모델을 촬영하러 온 사진가들은 사실 방송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관람객들로, 이분들은 전시회 통로를 가득 메운 상태에서 열심히 모델들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분들이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판매에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앵글을 보면 부스 전체가 아닌 모델만을 부각해서 촬영하기에 참여 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고, 반대로 부스를 찾아오는 방송관계자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전시회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하튼 RED는 여유롭게 카메라를 즐길 수 있었고, 그곳에 온 모든 분이 RED라는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디브이 인사이드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실 수요자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향후 KOBAS 쇼의 방향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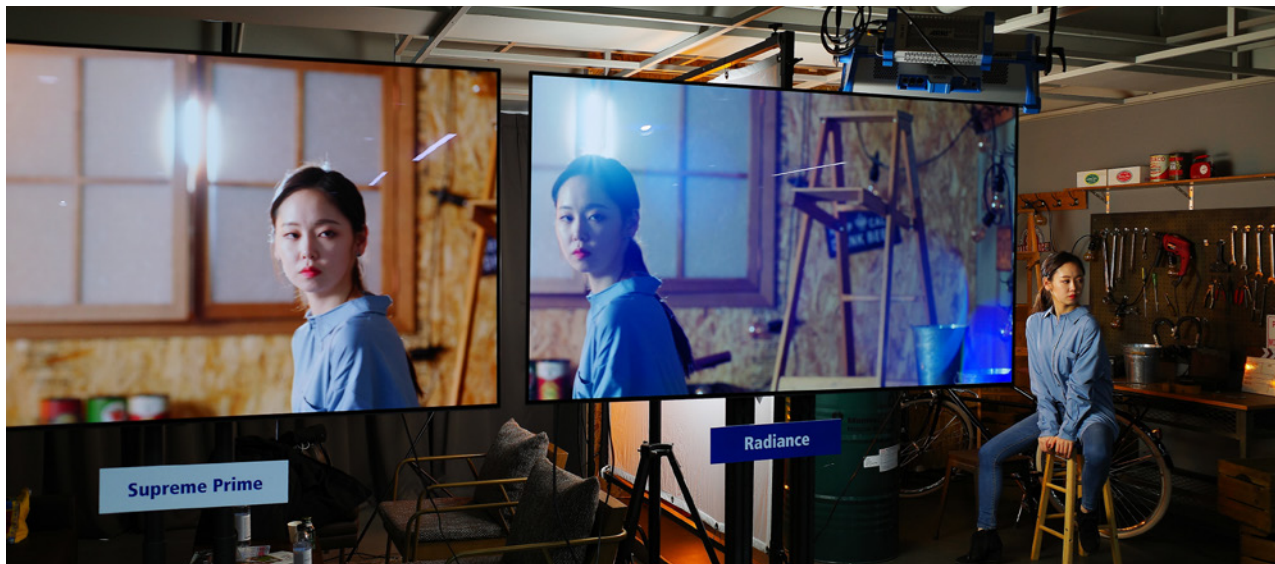


렌즈를 주목하자

카메라의 해상도는 현재 4K나 8K에서 크게 변화하려 하고 있지 않지만 렌즈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된다. 필자도 처음에는 렌즈의 썩한 해상도에만 집중해왔고,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는 렌즈는 사실 멀리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었다. 이제 카메라의 해상도는 거의 통일이 되어가고 있고, 레코딩은 나중에 색보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RAW나 LOG로 촬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색에 대해서 현장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된 것 같다.

후반작업을 통해 많은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촬영감독 개개인의 특징과 장점들을 없애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상도는 뒤로하고 각 렌즈마다의 느낌은 그 렌즈를 경험해본 촬영감독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렌즈의 선택은 촬영감독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한다.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에 따라서 분명 선택하는 렌즈도 다를 것이며, 어떤 촬영감독은 아나몰픽 렌즈에 더 강점이 있고, ZEISS Supreme Prime Radiance 렌즈처럼 멋진 하이레이션이 생기게 촬영하거나 역광에서 신비롭게 촬영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렌즈들이 나오고 있어 촬영감독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렌즈들을 찾을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랐다.



국내기업이기도 한 삼양옵틱스는 사진용 렌즈뿐만 아니라 시네마 렌즈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회사인데, XEEN이라는 상표로 시네마 렌즈를 출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풀 프레임용 50mm 아나몰픽 렌즈를 볼 수 있었는데, 앞쪽에 소니 베니스에 장착된 렌즈가 이 50mm 아나몰픽 렌즈였다. 조금 크고 무게가 있는 렌즈이지만 최근의 드라마들이 대부분 2.35:1의 비율로 방송하고 있어 더 많은 화소로 촬영해서 세로를 압축하는 아나몰픽 렌즈의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본다. 좀 더 많은 화각대의 렌즈들이 삼양옵틱스에서 발매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아나몰픽 렌즈만의 플레이어나 보케를 살려서 촬영되는 드라마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LAOWA는 2013년, 일본과 독일의 카메라 제조사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렌즈 디자이너들과 전문 포토그래퍼들이 함께 '세상에 없던 렌즈'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기다란 프로브렌즈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각의 가벼운 미러리스용 초광각 렌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회사이다.

위 사진의 렌즈는 페리프로브 렌즈인데, 잠수함의 잠망경 같은 형식의 직각으로 정면이 아닌 옆으로 촬영을 한다. 무선 기어를 달아서 렌즈를 돌릴 수가 있어서 정면을 제외한 위, 아래, 좌, 우의 어느 곳이라도 촬영이 가능해서 미니어처 촬영과 같은 특수한 촬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소형 아나몰픽 렌즈를 시네마 스타일로 제작해서 출시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렌즈이기도 하다. 그동안에는 소형 아나몰픽 렌즈로 SIRUI



아나몰픽 렌즈는 사용해 봤는데, 라오와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상도와 아나몰픽 렌즈만의 느낌을 어떻게 살렸는지 궁금한 렌즈이다.

그 외에도 캐논 부스에는 캐논 시네마 렌즈들이 유리관에 잘 전시되어 있었고, COOKE 렌즈도 고일 부스에서 볼 수 있었다. 한편 장외에서는 RED와 함께 양제뉴와 라이카 Leitz 렌즈가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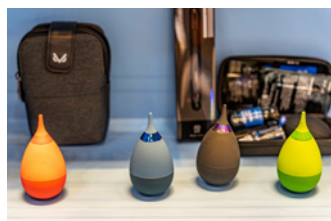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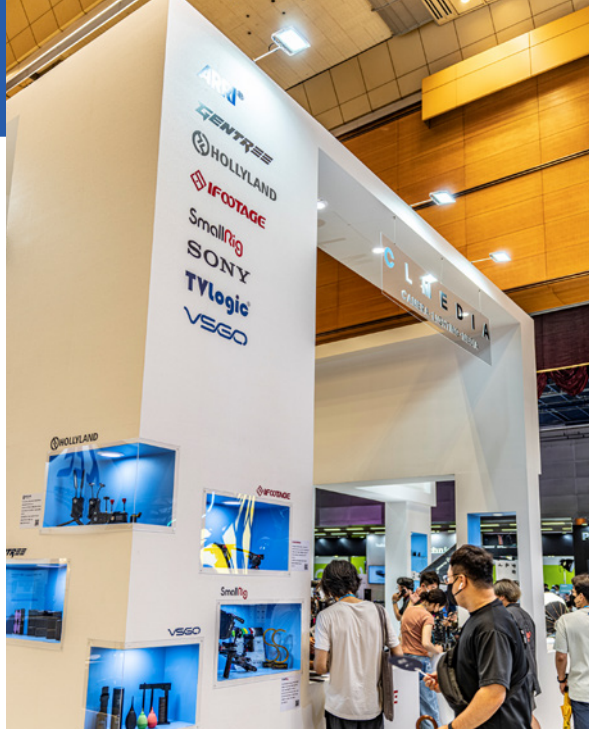
유쾌한 장비들

올해는 유쾌한 생각이 장비부스 중에서는 꽤 큰 규모로 출전을 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부스 내의 공간이 작아서 부스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였던 것 같다.

지운에서 새롭게 출시한 장비들과 미러리스 카메라용 리그들을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난라이트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여러 부스를 돌면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1인 미디어용 일체형 장비로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도 유쾌한 생각에서 개발해서 시연하고, 판매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그린촬영시스템에서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아서 사실 카메라 주변 장비들을 접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CLMEDIA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동 이동차부터, 렌즈 클리닝 장비들, 그리고 배터리까지 판매하는 촬영 관련 종합 기업으로 가볍게 사용이 가능한 접사용 전동 이동차와 무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들도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부스들을 소개하자면, 프롭터와 방송화면을 같이 모니터가 가능한 모니터 시스템이 관심이 갔는데, 확실히 가벼워진 시스템을 보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디지털 슬레이트와 여러 색상을 비출 수 있는 LED 조명, 그리고 DJI RONIN 4D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RONIN 4D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내에만 조금 늦게 출시가 된 것 같아 여러 가지로 한국만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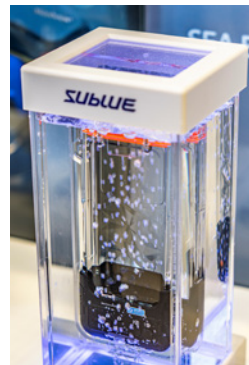


카메라용 레인커버, Live U 장비들, 카메라 하드 케이스, 소형 전동 이동차, 그리고 대부분의 소형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브로나인의 제품 등을 볼 수 있었고, 각종 크레인 장비와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한 로프로 작동이 가능한 장비들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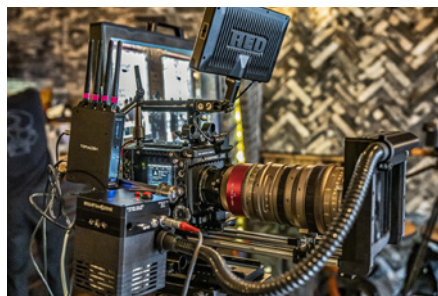


LED를 사용한 가상 화면 촬영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도 가능한데, 뒷배경의 VR(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환경과 주 피사체 앞에 움직이는 물체를 합성할 수 있는 장비였다.

수중 촬영용 드론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휴대전화용 장비라서 조금 아쉬웠지만 수요만 된다면 크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였다.



장외에 전시된 장비들을 보면, 촬영할 때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줄자를 이용해 거리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빔을 쏘서 거리를 측정해서 좀 더 촬영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비도 전시되어 있었다.



좌측의 장비는 우천 시 촬영해야 하거나 비 써를 촬영할 때 렌즈에 빗물이 묻어도 바로 털어 내주는 장비인데 전원이 필요하고, 조금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장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Leica SL2-S 바디와 라이즈 렌즈를 사용한 디렉터스 뷰파인더 시스템도 볼 수 있었는데, 정밀하고 정확한 앵글로 샷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샌드 디스크의 백업장비 및 스토리지도 전시되어 있었다.



TERADEK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도 전시가 되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을 받는 장비이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카메라에서 라인을 길게 뽑아 감독 모니터까지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장비라서 계속 환영을 받으며, 발전해갈 장비라고 생각한다.



마치며

2019년에는 영상 관련 장비만으로 한 층을 가득 채웠던 전시회가 2년이란 기간 동안 쉬면서 많이 축소되고 말았다. 이는 국내 전시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적으로 주춤한 시장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보면 불만 사항도 꽤 많은 것 같았다.

이번 KOBA는 종이 브로셔가 없어지고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브로셔로 대체되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었지만, 브로셔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이를 소비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찬성하는 바이다.

부스에 모델들이 있는 것은 모델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카메라나 렌즈가 표현해 낼 수 있는 색감과 해상도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특정 모델만을 촬영하기 위해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분명 주의해야 할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소니코리아와 같은 본사 직영 회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정해진 물량만 판매하면 되지만 수입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 저조로 오는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한 해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예전 수준으로 사용하려면 카메라를 그만큼 판매해야 하는데 카메라 수급이 어렵다 보니 실적은 본의 아니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캐논이나 소니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업체들도 센서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마당에 이미지센서를 직접

제작하지 못하는 카메라 제조사의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일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는 카메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현실이 된 상태이고 이는 어찌 보면 제조사의 카메라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있는 수입사의 입장에서는 줄어든 매출만큼 홍보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팬데믹으로 인해 2년간 전시회가 없었던 것이 경험이 되어 전시회의 필요성이 절실해지지 않은 업체들은 전시회 불참이 또 하나의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KOBA로써는 올해 전시회가 또 다른 위기라는 것을 꼭 느끼길 바란다. 한동안 다 끝난 것 같던 코로나가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의 KOBA도 순탄치 않을 것은 분명하고 업체들 역시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시회 주최 측과 업체 간의 대화는 꼭 필요한 것이기에 전시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업체와 주최 측, 그리고 방송 전시회를 보러오는 방송전문가들에게도 모두 만족스러운 전시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하길 바라며, 규모나 방문자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로 발전하는 KOBA가 되기를 바란다.



10월에는 부산에서 ‘시네코리아 엑스포 2022’ 전시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 전시회도 열려봐야 알겠지만 전시회를 열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어서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경제 상황에서 의미 없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분명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시회에 꼭 참가해야 할 이유를 주최 측은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